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확장 속도 낸다

다큐브·데이타몬드 등 10개 혁신 기업과 협약
산업별 실증·상용화 촉진...AX 실증밸리 본격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10개 혁신 AI 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다큐브㈜ △썬데이터몬드 △몽구스에이아이㈜ △썬솔티랩 △썬에쓰지마 △썬에이엑스 △썬원앤아이 △썬이노바메디 △썬이음아이씨티 △피플즈리그㈜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각자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다크큐브는 자연어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큐비(QUVI)'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썬데이터몬드는 200만명 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맞춤형 코칭 플랫폼을 제공한다. 몽구스에이아이㈜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설비 예지·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며, 썬솔티랩은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썬에쓰지마는 기후변화 대응 수산·해양 예측 플랫폼 '블루매트릭스'를 운영하며, 썬에이엑스는 기업 맞춤형 AI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썬원앤아이는 공공 인프라와 스마트 서비스용 네트워크 관제 솔루션을, 썬이노바메디는 AI 기반 치매 예방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다. 썬이음아이씨티는 산업현장 물관리·공공 인프라 최적화 솔루션을, 피플즈리그㈜는 대용량 조리 로봇 '솔봇'으로 급식 현장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본사 이전이나 연구소·지역사무소 설립을 검토하며 광주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AI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아가려는 광주시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혁신기업들을 광주에 집중하고, 산업별 실증·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AI 직접단지 1단계 사업을 통



광주시는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10개 혁신 AI 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구체적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수천 건의 기업 실증·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기업 성장을 도왔다.

내년부터는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AI 직접단지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 전략산업(모빌리티·에너지 등)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과 시민 일상 생활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AI 기업 집적과 산업생태계 확장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다"며 "기업들이 광주와 협력하고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실질적인 AI 중심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25'
GICON, 공동관 준비 박차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광주글로벌 게임센터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GICON은 이번 공동관 운영을 통해 광주지역 우수 게임 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8월 광주에서 열린 '2025 광주 ACE Fair'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 태국게임쇼 X 게임스컴 아시아' 공동관 운영에 이어, 이번 지스타에서도 지역 게임사의 글로벌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관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9개 게임사가 참여해 대표 게임 시연, 공동 이벤트를 통한 경험 증진,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경제일자리재단-금호고속, 소상공인 플리마켓 '성황'

온라인 플랫폼 MD 상담회도

(재) 광주경제진흥원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플리마켓 X 유스퀘어'와 온라인 플랫폼 MD 상담회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이 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기획·운영은 문화토리가 맡았다. 상담회는 플랫폼 MD와 1대1 직접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고, 플리마켓은 상시 운영됐다.

행사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곧바로 MD와 입점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재) 광주경제진흥원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소상공인 플리마켓 X 유스퀘어'와 온라인 플랫폼 MD 상담회를 운영했다.

플리마켓 부스에서 고객을 응대하던 셀러들이 바로 상담부스로 이동해 MD와 제품 경쟁력, 플랫폼 진입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어 업무시간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유스퀘어 광장에 제품 전시존(ZONE)을 운영

해 지역 제품의 홍보 효과도 높였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판로를 시험하고 동시에 플랫폼 MD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행사 구조를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지역 콘텐츠 IP, 어린이 뮤지컬 첫 무대

GICON 지원 '샤샤&마일로'...29~30일 백암아트홀서 공연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의 지원을 받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샤샤&마일로'가 뮤지컬 '샤샤&마일로: 비밀의 수호자'로 재탄생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콘텐츠 IP 공연·전시 지원을 통해 추진된 작품으로, 지역 애니메이션 IP를 공연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제작은 원작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평고엔터테인먼트가 맡았으며,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등 다수 작품을 연출한 백승걸 연출가를 비롯해 안무가 김기만, 음악감독 박한영 등 공연계 베테랑 스태프가 참여했다. 배우들의 연기와 화려한 무대 연출, 액션 안무가 결합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샤샤&마일로: 비밀의 수호자'는 원작

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샤샤와 마일로가 영웅으로 성장하며 악당 루카 일당과 맞서는 이야기를 새로운 무대 연출·음악·안무로 재해석했다. 단순한 에피소드 나열이 아니라 서사 완성도와 감정선을 충실히 담아 애니메이션 팬뿐 아니라 뮤지컬 팬층까지 공략한다.

공연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백암아트홀에서 총 5회 진행된다. 초연을 기념해 공식 SNS 인증 이벤트 및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티켓은 NOL티켓,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에서 구매할 수 있다.

평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을 통해 '샤샤&마일로' IP가 애니메이션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외 무대 진출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37년 기술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특수벨트 가공전문

오양물산

·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장덕동) · 제2공장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 Tel : 062)953-0006 · Fax : 062)955-0030 · URL : http://www.oyangms.com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O시 광남문화재단

오양물산주식회사

O-YANG PRODUCT CO., LTD.